

# KT, 블록체인·AI 기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진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 완료  
e-브레인 연계 정확한 발전량 예측  
KT 블록체인으로 투명한 장부 공유

KT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진출을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전력중개사업은 중개사업자(KT)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에서 생산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KT는 2016년 전력중개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과 함께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왔다.

지난 5월 28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KT 직원들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KT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T는 하반기 중 전

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전력중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향후 법률시행 일정에 맞춰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KT는 에너지 통합관제 플랫폼 ‘KT-MEG’의 인공지능 분석엔진 ‘e-브레인’을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에 연계해 정확한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KT 블록체인’을 활용해 고객사와 발전량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수익을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다.

현재는 발전사업자와 중개사업자 각각이 저장한 발전량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산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정산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서로의 장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느 쪽의 데이터가 옳은지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KT는 발전량, 발전시간, SMP(전력가격) 등 정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블록체인화 해 고객사와 공유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게다가 위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복잡하고 반복적인 정산, 검증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만으로 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서 거래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당사자 간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기술이다.

KT의 전력중개 사업에 적용된 블록체인은 실시간 정산 기능을 구현해 낸 핵심 기술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데이터의 병렬·다중 처리를 통한 고속 암호화와 실시간 데이터 검증 및 합의 알고리즘으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한편, KT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수요반응(DR) 등 다양한 스마트 에너지 상용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이외에 의료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사업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효성, 지주사 대표 조현준·김규영

5개사 사내외 이사진 31명 선임

효성은 3일 회사분할 후 처음으로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와 사업회사 4곳의 사내외 이사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지주사 효성과 사업회사 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효성화학 등 총 5개사는 지난 1일 오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 11명, 사외이사 20명의 이사진을 선임했다.

지주사인 효성의 대표이사는 조현준 회장과 김규영 사장이 맡고, 조현상 사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효성은 지주회사(주)효성과 신설된 사업회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대해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외이사로는 손병두 전 KBS 이사장,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손영래 전 국제청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권오근 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경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선임됐다.

효성티앤씨는 김용섭 전무를 대표이사로, 이천규 전무를 사내이사로 뽑았다.

김 대표이사는 스파텍스 연구원으로 시작해 브라질 스파텍스 법인장을 거쳐 스파텍스PU장을 역임한 바 있다.

사외이사로는 장승철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최병덕 전 사법연수원장, 오병희 전 서울대학교 병원장, 윤의준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 4명을 뽑았다.

효성첨단소재는 황정모 대표이사 부사장과 김승한 전무를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황 대표이사는 타이어코드 생산 및 기술 책임자로 일하며 품질 안정화·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사외이사로는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과 한인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공학과 특훈교수가 선임됐다.

효성중공업은 문철철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김동우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문 대표이사는 중공업PG 핵심사업인 초고압 변압기의 영업·생산 전 부문을 총괄하고, 스테콤 등 신규사업을 이끌어왔다. 사외이사로는 안영률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석좌교수, 신연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등이 선임됐다.

효성화학은 박준형 사장을 대표이사로, 최영교 전무를 사내이사로 뽑았다.

박 대표이사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화학부 전문경영인의 길을 걸어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사외이사로는 편호범 전 감사원 감사위원, 왕윤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창제 전 법무부 차관이 선임됐다. /정민기 기자 21cindiun@

## LGU+, OBD 기반 커넥티드카 시범서비스

(운행기록 자가진단 장치)

통신·결제·차량 4개 사업자 ‘맞손’  
제주 렌터카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

통신·결제·차량 관련 4개 사업자가 손잡고 각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커넥티드카 기반의 미래 결제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이달 1일 KB국민카드, 제주패스, 핸디카와 ‘커넥티드카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제주 지역 렌터카들을 대상으로 OBD(On Board Diagnosis) 기반의 커넥티드카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OBD란 자동차의 고장 여부, 배기 가스 방출량, 위치 등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다.

4개사가 협업하는 이번 시범서비스는 제주패스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OBD가 탑재된 차량을 제공하고, OBD 장치로부터 수집된 고객의 운행기록으로 친환경 운전습관인 ‘에코드라이빙’ 점수를 평가한다. 렌터카 이용 고객들은 운전 종료 후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속, 공회전 등 나의 운전습관과 이에 따른



모델이 LG유플러스의 OBD기반 커넥티드카 시범서비스 운영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에코드라이빙 점수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의 특징은 OBD장치에 LG유플러스의 톱탑에블루션(LTE) 통신모뎀을 결합해 일반 차량을 커넥티드카로 탈바꿈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차량 내 OBD와 고객의 스마트폰 앱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차량의 위치 정보와 회원의 결제 정보 간의 연동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고객의 주행 경로에 따른 소비 패턴, 방문고객 대비 실제소비 비율 등 단일 사업자가 파악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4개사는 차량 운행, 결제, 위치 정보 등

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 마케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커머스 연계한 신규 서비스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렌터카 이용 중 주차장, 주유소, 음식점 등 주요 장소에 방문하게 되면, 스마트폰 앱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전에 등록된 결제 정보로 자동 정산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다.

아울러 4개사는 원격 차량진단, 맞춤형 통계정보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와 함께 결제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인텔리전스-커머스’ 서비스 발굴 및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 SKT, 미주·유럽 장기 체류객 로밍요금제 출시

SK텔레콤은 지역 맞춤 요금제 미주패스, 유럽패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T로밍 고객은 기존에 출시된 아시아패스, 한중일패스와 더불어 전 세계 85개국에서 저렴한 데이터 로밍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85개국은 T로밍 고객이 방문하는 국가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미주, 유럽패스는 각각 미주 지역 15개국, 유럽 지역 44개국에서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미주패스는 데이터 3GB(3만3000원), 6GB(5만3000원), 유럽패스는 데이터 3GB(3만9000원), 6GB(5만9000원)를 제공한다.

미주, 유럽 지역을 방문하는 T로밍 고객은 평균적으로 10일 이상 현지에서 머물



SK텔레콤 홍보모델이 미주, 유럽패스 출시를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고, 여러 인접 국가를 방문한다. 미주, 유럽패스는 이러한 여행 패턴을 감안해 이용 기간을 30일까지 넉넉하게 늘리고, 로밍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확대했다.

/김나인 기자

6개 그룹사, ICT 인프라 구축 완료

KT 그룹사가 화재로 교실을 잃고 낙심한 필리핀에 새로운 교실을 선물했다.

KT는 지난 5월 28일부터 일주일간 필리핀 타클로반 레이테시 둘락 지역에서 BC카드, KT스카이라이프, KT에스테이트, KTSAT, KTDS, KT그룹희망나눔재단 등 6개 그룹사가 참여해 화재로 소실된 초등학교의 정보기술(IT) 미디어 교실을 다시 짓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타클로반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560km 떨어진 섬으로, 해안가에 인접한 어촌 마을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륙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3년 초대형 태풍 하이옌이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재해 복구를 위해 한국군부



그룹사 임직원이 교실 외관 공사 및 SW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KT

대가 파병됐고, BC카드도 ‘빨간참차’를 파견해 급식을 지원했다. 이후 2014년 해당 부대가 한국으로 복귀 후에도 현지 주민들에게 무료 급식과 영양 교육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KT 6개 그룹사가 봉사를 펼친 곳은 둘락에 소재한 산호세 센트럴 초등학교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총 20개반 78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나 지난해 10월 컴퓨터 교실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큰 화재가 발생해 13개 건물에 전소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웠다.

현지에 도착한 그룹사는 각사가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된 ICT 교실을 신축해 지역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KTDS는 IT 나눔 교육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컴퓨터 수업과 가상현실(VR) 체험 교육을 진행했고, KT에스테이트는 교실 외관 공사 등 리모델링과 벽화 그리기로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아이들의 시청각 교육 지원을 위해 초고화질(UHD) TV와 어린이 방송 교육 콘텐츠 등을 무상 제공했다.

/김나인 기자

## KT, 화재로 소실된 필리핀 초교에 ICT 교실 선물